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4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¹⁾

황진구 선임연구위원
전현정 부연구위원
이용해 전문연구위원

요약

- 조사목적**
 - ▶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학술연구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 아동·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복합적인 변화양상을 체계적이고 다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 구축
- 조사대상**
 - ▶ 원패널 : 2018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초4 코호트 2,607명), 중학교 1학년(중1 코호트 2,590명)
 - ▶ 원패널 보호자 : 5,000여명(각 코호트별 2,500여명), 원패널 형제자매 : 1,800~2,000여명(각 코호트별 900~1,000여명)
- 조사방법**
 - ▶ 원패널 및 패널의 형제자매 : 개인발달(생활시간, 지적발달, 진로, 사회·정서·역량발달, 비행, 건강, 신체발달 등), 발달환경(가정, 학교, 친구, 매체, 활동·문화 환경 등) / 스페셜 모듈(3차 조사 : 재난안전의식, 4차 조사 : 정서인식 역량, 5차 조사 : 진로준비도)
 - ▶ 보호자 : 배경변인(학력, 직업, 경제수준 등), 보호자 개인 특성(사회·정서·역량, 매체이용, 건강 등), 아동·청소년 발달 배경(가정, 교육 등) / 스페셜 모듈(3차 조사 : 재난안전의식, 4차 조사 : 정서인식 역량, 5차 조사 : 진로준비도)
-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제3차년도만 가구방문 면접조사 + 온라인 조사)
- 조사기간** ▶ 매년 8월 ~ 11월 (제3차년도만 8월 ~ 12월)

1) 본 블루노트 통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년도 고유과제 보고서인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와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의 주요 결과를 발췌·요약한 것임.

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²⁾ 제4차년도(2021년) 주요 조사결과

■ KCYPS 2018 코호트별 · 연차별 유지율

- KCYPS 2018 4차년도(2021년) 조사는 원패널 대상자의 교급 변동이라는 내부적 요인과 코로나19에 의한 외부적 요인으로 다른 차수에 비해 패널 유지율 하락 정도가 높은 편임.
 - 코호트별로 원패널의 전체 유지율은 87.4%이며, 보호자와 형제자매는 각각 87.2%, 89.6%로 조사되었고, 연도별 패널 유지율은 다음 그림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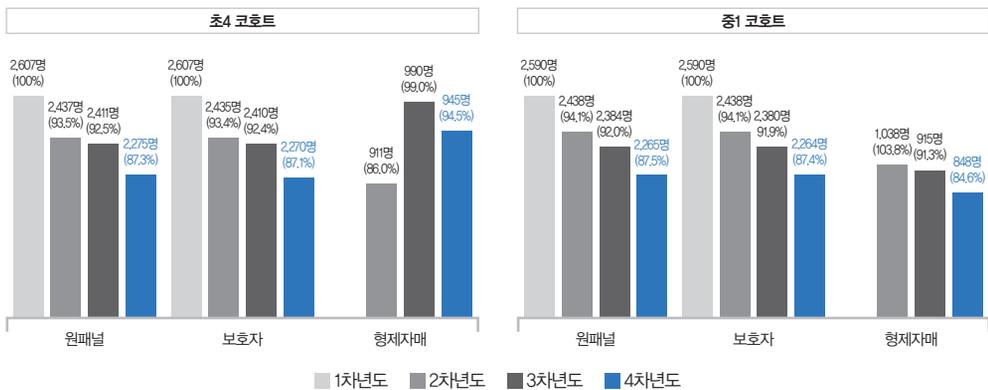


그림 1 KCYPS 2018 조사 코호트별 · 연도별 패널 유지율

■ 2018년 중1 패널과 2021년 초4 패널(중학교 1학년) 조사결과 비교

- 제4차년도 조사는 시기적으로 교급 전환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2018년 당시 중학교 1학년(중1 코호트 1차년도)과 2021년 현재 중학교 1학년(초4 코호트 4차년도)의 영역별 주요 결과들을 살펴보았음.
 - 개인발달 영역에서 학업열의는 헌신을 제외한 활기, 효능감, 몰두 항목에서 2021년 현재 중학교 1학년이 2018년 당시 중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그릿(Grit), 정서문제, 협동 의식은 2018년 당시 중학생이 2021년 중학생보다 더 높다는 결과임.

표 1 2018년 중1 패널과 2021년 초4 패널(중학교 1학년) 비교 - 개인발달

(단위 : 점)

구분	2018년(중1 원패널 1차)		2021년(초4 원패널 4차)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학업열의	헌신	2.89	0.61	2.82	0.57	3.758***
	활기	2.29	0.63	2.36	0.62	-4.093***
	효능감	2.44	0.73	2.51	0.64	-3.552***
	몰두	2.41	0.65	2.43	0.62	-0.935
삶의 만족도	2.77	0.60	2.75	0.54	1.364	
행복감	3.13	0.54	3.06	0.46	5.368***	

2)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2018(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이하 KCYPS 2018)

구분	2018년(중1 원패널 1차)		2021년(초4 원패널 4차)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아존중감	3.08	0.50	2.99	0.45	6.870***	
그릿(Grit)	2.53	0.31	2.51	0.35	2.329*	
정서문제	주의집중	2.16	0.57	2.12	0.58	2.120*
	공격성	1.90	0.59	1.88	0.57	1.227
	신체증상	1.85	0.61	1.78	0.57	4.202***
	사회적 위축	2.14	0.75	2.10	0.71	2.131*
	우울	1.79	0.63	1.73	0.54	3.552***
협동의식	집단축진	2.90	0.57	2.84	0.58	3.360***
	팔로워십	3.13	0.57	3.04	0.57	5.737***
	갈등문제해결	3.02	0.57	2.93	0.55	5.337***

* p<.05, ** p<.01, *** p<.001

- 발달환경 영역은 학교생활 만족도, 친구관계, 접근가능성을 제외한 교사관계, 양육태도 중 따스함, 자율성 지지, 구조제공 항목이 2018년도 당시 중학생이 2021년 현재 중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외적인 환경변화였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 격리로 친구들과의 만남 등 외부활동이 제한되고 가정 내 머무는 시간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어짐.

표 2 2018년 중1 패널과 2021년 초4 패널(중학교 1학년) 비교 - 발달환경 (단위: 점)

구분	2018년(중1 원패널 1차)		2021년(초4 원패널 4차)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학교생활 만족도	4.07	0.88	3.89	0.80	7.627***	
친구관계	긍정적 관계	3.12	0.53	3.00	0.50	7.997***
	부정적 관계	3.16	0.52	3.15	0.56	0.998
교사관계	접근가능성	2.49	0.63	2.56	0.60	-3.810***
	민감성	2.82	0.54	2.79	0.53	1.405
	신뢰성	2.92	0.56	2.87	0.54	3.552***
	수용성	2.98	0.58	2.93	0.53	3.009**
양육태도	따스함	3.37	0.57	3.27	0.57	6.329***
	거부	1.77	0.62	1.89	0.66	-6.777***
	자율성 지지	3.35	0.57	3.22	0.56	7.757***
	강요	2.17	0.65	2.21	0.62	-2.525*
	구조제공	3.07	0.54	2.99	0.51	5.045***
비일관성	2.04	0.64	2.13	0.62	-4.722***	

* p<.05, ** p<.01, *** p<.001

■ **교급 변동에 따른 이탈표본 특징 분석**

- 패널 유지율은 패널조사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조사 시 표본이탈을 최소화하고자 많은 노력과 함께 여러 표본이탈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패널연구의 경우 교급 변동은 유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쟁점 중에 하나임.
- 이에 교급 변동이 발생하는 4차년도(2021년) 조사에서 표본 이탈패널 현황을 살펴보고, 영향요인으로 개인, 부모, 가구 차원의 변인을 제3차년도 이탈패널 대상과 비교하였음.
 - KCYPs 2018 4차년도(2021년) 표본 이탈패널 수는 총 338명으로 초4 코호트는 173명(51.2%), 중1 코호트는 165명(48.8%)임.

표 3 KCYPs 2018 4차년도 교급변동에 따른 표본 이탈패널 수

(단위: 명, %)

구분	초4 원패널 코호트(초등 → 중등)		중1 원패널 코호트(중등 → 고등)		전체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소계	173	100.0	165	100.0	338	100.0	
성별	남자	85	49.1	90	54.5	175	51.8
	여자	88	50.9	75	45.5	163	48.2

- 제3차년도 이탈패널과 비교한 결과, 변인별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개인변인은 두 이탈패널 유형 모두 남자의 비율이 더 높았으나 제4차년도에서 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고 지난 학기 전과목 성적수준(5점 만점)이 다소 높아진 상태에서 이탈하는 경향을 보였음.
- 부모변인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학력이 각각 4년제 대학 이상 졸업한 경우와 부모 모두 취업한 상태에서 이탈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또한 가구변인에서는 주로 4인 가구구성원과 주관적 경제수준이 보통인 경우와 중소도시 지역에서 높은 이탈율을 보였음.

표 4 제3차년도와 제4차년도 이탈패널 비교

(단위: 점, 명, %)

구분		제3차년도 이탈패널		제4차년도 이탈패널		χ^2 / t	
		평균 (사례수)	표준편차 (비율)	평균 (사례수)	표준편차 (비율)		
개인 변인	성별	남자	(70)	(53.8%)	(175)	(51.8%)	0.161
		여자	(60)	(46.2%)	(163)	(48.2%)	
	지난 학기 전 과목 성적수준	3.40	0.86	3.48	0.85	-0.976	
	본인 출생순위	1.58	0.62	1.57	0.66	0.156	
부모 변인	아버지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	(1.6%)	(5)	(1.6%)	5.589
		고등학교 졸업	(38)	(30.6%)	(65)	(20.2%)	
		2~3년제 대학 졸업	(22)	(17.7%)	(61)	(19.0%)	
		4년제 대학 이상 졸업	(62)	(50.0%)	(190)	(59.2%)	
	어머니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	(1.6%)	(0)	(0.0%)	5.670
		고등학교 졸업	(39)	(31.0%)	(92)	(28.2%)	
		2~3년제 대학 졸업	(33)	(26.2%)	(93)	(28.5%)	
		4년제 대학 이상 졸업	(52)	(41.3%)	(141)	(43.3%)	
부모취업 여부	부모 1명 이상 미취업	(46)	(35.7%)	(100)	(31.1%)	0.891	
	부모 모두 취업	(83)	(64.3%)	(222)	(68.9%)		
	가구 구성원수	4.17	0.81	4.14	0.94	0.291	
가구 변인	주관적 가정의 경제수준	하	(19)	(14.6%)	(42)	(12.4%)	1.067
		보통	(97)	(74.6%)	(267)	(79.0%)	
		상	(14)	(10.8%)	(29)	(8.6%)	
	도시 규모	대도시	(44)	(33.8%)	(109)	(32.2%)	0.386
		중소도시	(71)	(54.6%)	(183)	(54.1%)	
		읍면지역	(15)	(11.5%)	(46)	(13.6%)	

2 데이터분석 - 청소년 정서인식 역량의 경향 및 영향요인 탐색

■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 경향성 비교

-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전반적인 정서인식 역량 수준을 파악하고 그 경향성을 살펴보고자 성별, 도시규모 등의 인구구성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인식 역량 정도의 차이를 분석함.
- 주요 분석 결과
 - 일부 인구구성학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이 유사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됨.
 - 주관적으로 자신이 속한 가정의 경제 수준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타인의 정서를 인지하고 인식하려는 정서인식 역량이 높게 나타남.
 - 학교급에 따라 거주하는 도시 규모에 따른 정서인식 역량 정도에 차이가 확인됨. 고1 청소년과 보호자는 거주하는 도시 규모가 작을수록 정서인식 역량이 높게 나타남.

■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 간 정서인식 역량 관계

-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의 복합적이고 다면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청소년과 보호자, 형제·자매 간의 정서인식 역량 정도에 따라 잠재 유형을 구분하고 이질적인 특성을 갖는 잠재집단 간 개인·환경 요인에 대한 차이를 분석함.
- 주요 분석 결과
 -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 간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는 잠재집단이 도출됨. 이는 청소년과 밀접한 사회관계 주체인 보호자와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 정도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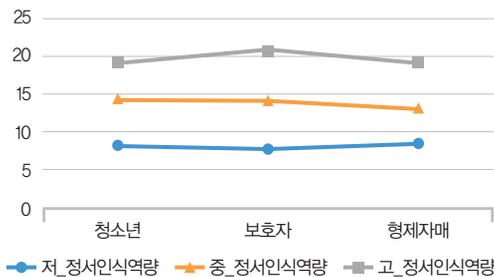


그림 2 잠재집단 특성(중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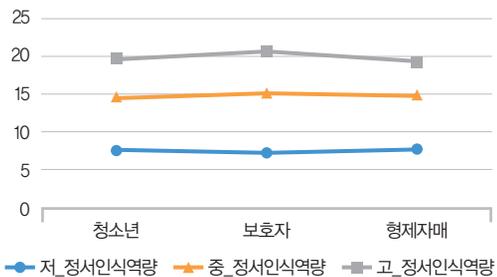


그림 3 잠재집단 특성(고1)

- 청소년 개인의 측면에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심리·정서적 요인이 정서인식 역량과 유의미한 연관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함.
- 개인 영역의 학습 심리적 요인으로 정서인식 역량이 낮은 집단의 학습무기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1 집단에서 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의 성취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학업성취도가 낮은 경향을 보임.
- 정서인식 역량 정도가 높은 집단의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이며,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더욱이 중1 집단의 부모와의 변수들에서 잠재집단 간 차이가 눈에 띄게 확인됨.
- 정서인식 역량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긍정적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이 낮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에 비해 교내외 동아리 연간 참여 횟수가 많으며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분류 및 영향요인 탐색

-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의 하위 구성요소에 따른 잠재집단 유형을 구분하고, 도출된 잠재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환경적 맥락요인을 랜덤포레스트 기법을 활용하여 탐색함.
- 주요 분석 결과
 - 도출된 잠재집단의 정서인식 역량과 사회성 수준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났으나, 중1과 고1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특성에 따라 비슷한 양상의 잠재집단이 분류되었음.
 - 부모, 교사, 친구와의 관계 등의 사회적 관계 변수가 집단분류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됨.
 - 여가시간을 보내는 방식이나 학교 및 지역 사회에서의 다양한 비교과 활동 경험이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구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고1 청소년 집단에서 학업 관련 변수와 여가시간 관련 변수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 교내 동아리 활동 참여 횟수가 많은 청소년일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정서-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남.
 - 학업열의, 학업무기력과 같은 학습 심리적 요인이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분류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도출됨.

■ 주요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개인, 가정, 학교 범주별 주요 분석 결과 및 시사점

[개인]

- **청소년의 배경 특성 및 정서인식 역량 인지**
 - 청소년의 배경 특성과 학교급에 따라 정서인식 역량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며, 사회정서역량의 하위영역으로 정서인식 역량과 사회성 수준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남.
- **적절한 교육적 개입 필요**
 - 학습 · 심리적 요인(학업무기력, 학업열의 등)이 사회정서역량의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도출됨.
- **청소년의 심리 · 정서 지원 요구**
 - 청소년의 다양한 심리 · 정서적 요인이 정서인식 역량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지님.
 - 개인의 심리 · 정서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지원체제 마련이 요구됨.

[가정]

- **가정이 지닌 역할의 중요성 및 가정 기능 회복 필요**
 - 청소년, 보호자, 형제 · 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이 유사한 경향성을 보임.
 - 사회 · 정서 역량과 유의미한 연관을 지니고 있는 가정 요인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교감 및 공감 등의 상호작용 변수들이 도출됨.

[학교]

- **학교 내 긍정적 관계 형성 및 청소년 활동 참여 지원 필요**
 - 정서인식 함양에 다양한 긍정적 사회관계 형성이 유의미한 관련성을 지님.
 - 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이 교내외 동아리 연간 참여 횟수가 많으며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교 및 지역 사회에서의 다양한 활동 경험이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구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3 KCYPS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

■ 유지조사 목적

- 배경
 - 2016년 조사가 종료된 KCYPS 2010의 중1 코호트를 대상으로 이들과의 접촉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2017년부터 매년 진행함.
- 목적
 - 향후 후속 연구나 조사개발 등을 통해 이들의 청소년기 조사 데이터와 결합하여 아동·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 및 정책적 개입들이 성인기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함.

■ KCYPS 2010 중1 코호트 제5차 유지조사(2021년) 주요 결과

- 조사방법 및 유지율
 - 2021년 실시된 'KCYPS 2010 중1 코호트 제5차 유지조사(25세)'는 컴퓨터를 이용한 웹조사(CAWI: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로 진행하였고, 2010년 당시 중1 원패널 2,351명 중 1,622명(69.0%)과의 접촉 또는 연락을 성공함. 설문조사는 1,436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는 접촉에 성공한 패널의 88.6%에 해당하고, 전체 원패널 2,351명의 61.1%에 해당함.
- 현재 신분 상황
 - 패널의 현재 상황과 관련하여,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는 제1차 유지조사에서는 77.7%,³⁾ 제2차⁴⁾ 69.8%⁵⁾ → 제3차 56.4% → 제4차에서는 45.9%로 매년 10%p 정도씩 감소하였으며, 제5차조사에서는 32.4%로 조사되어 유사한 감소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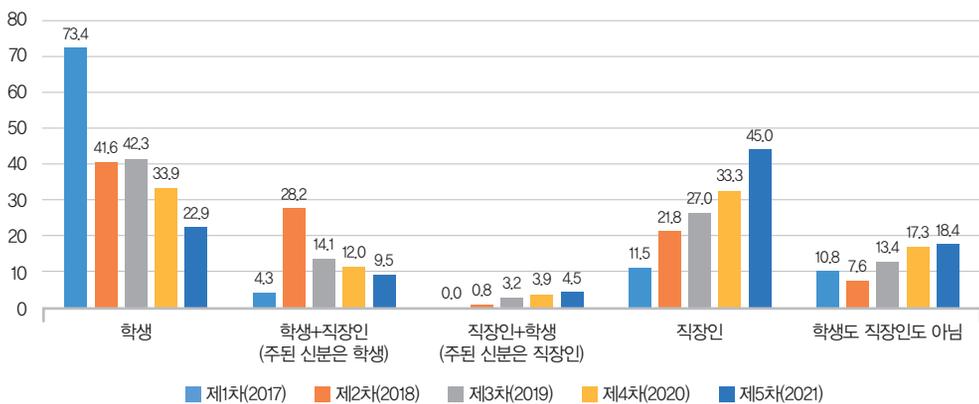


그림 4 현재의 신분 상황

3)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일은 하지 않고 있다'와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일도 하고 있다'의 응답 합계.

4) 제2차 유지조사부터는 제1차 유지조사의 문항 중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일도 하고 있다'를 '학교에 다니면서, 일도 하고 있다(주된 신분은 학생)'와 '일을 하고 있고, 학교는 다니지 않고 있다(주된 신분은 직장인)'로 구분하여 조사함.

5) '학교에 다니고 있고, 일은 하지 않고 있다'와 '학교에 다니면서, 일도 하고 있다'의 응답 합계.

● 현재 삶의 만족도 변화

– 패널의 현재 삶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만족한다'(만족한다 +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1차 조사 62.7%, → 제2차 62.3% → 제3차 52.5% → 제4차 51.8% → 제5차 51.6%로 응답함(※ 기타 자세한 조사결과는 사업보고서를 참조 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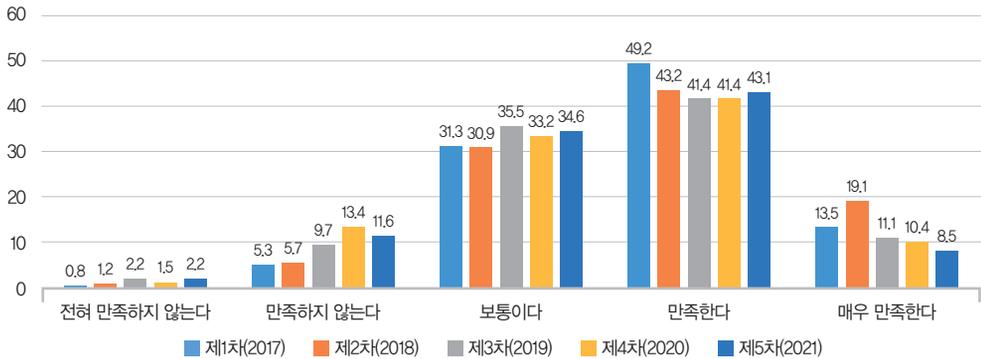


그림 5 현재 삶의 만족도

4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데이터 활용실적

■ 데이터 활용 실적

-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데이터가 공개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3,817편의 각종 논문과 보고서 등에서 패널 데이터가 활용됨.
- KYPS 2003의 데이터는 2004년부터 2022년까지 19년간 총 1,192편, KCYPS 2010 데이터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2년간 2,066편, KCYPS 2018 데이터는 2019년부터 약 4년간 559편의 활용실적을 보임.

표 5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데이터 활용실적(2004년~2022년)

구분	전체		제1기 조사 (KYPS 2003)		제2기 조사 (KCYPS 2010)		제3기 조사 (KCYPS 2018)		
	편수	%	편수	%	편수	%	편수	%	
계	3,817	100	1,192	100	2,066	100	559	100	
학위 논문	박사	146	3.8	46	3.9	85	4.1	15	2.7
	석사	521	13.6	131	11.0	320	15.5	70	12.5
학술지논문	2,389	62.6	768	64.4	1,280	62.0	341	61.0	
학술대회 발표논문	616	16.1	198	16.6	296	14.3	122	21.8	
보고서/단행본	145	3.8	49	4.1	85	4.1	11	2.0	

*2022년 10월 기준 집계치임.